

산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6 권 31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오후 2-6 시), 화.수요일 (오전 9:30 시-오후 8 시). 목 (오후 2-6 시),

금요일(오전 9:30 시-오후 6 시).

미 사 성 가	입 당 (24)	봉 헌 (211)	성 체 (180)	파 견 (4)
---------	------------	-------------	-------------	-----------

2016 년도 구역 및 구역원 명단

- 1 구역 : 유 마리아(구역장), 이 바실리오, 배 실비아, 배 안젤로, 양 유리안나, 오 베드로, 오 루시아, 유 요한, 손 아놀드, 손 잼마, 최 요안나, 최 마태오
- 2 구역: 이 마틸다(구역장), 이 그레이스, 장 글라라, 이 요한, 이 요셉, 이 데레사, 전 제노베파, 김 안드레아, 김 마르타, 데니엘 한, 사비나
- 3 구역: 김 헬레나(구역장), 박 니콜라스, 박 마가렛, 김 마론, 김 데오도라,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허 루카, 배 시몬, 김 글라라
- 4 구역: 김 유스티나(총 구역장), 홍마르코, 홍아네스,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이 글라라, 이 안드레아, 이 안젤라, 정 바오로, 정 릃타, 김 유수티노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8/28	이 마틸다	김 유스티나	성인 복사
9/4	유 요한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9/11	이 그레이스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9/18	박 니콜라스	김 유스티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9/25	이 마틸다	이 바오로	성인 복사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이 조연.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8/21/16	\$342	\$119	\$350

새 신자 교육 9월 부터 시작

9월 부터, 한인공동체 새 신자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 합니다. 주위에 새 신자 교육을 받아야 되실분이나, 관심이 있으신분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박 마가렛 자매님께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오직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

이 세라 진이아가다/KBS 기상 캐스터

종종 기상캐스터를 꿈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제가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기상캐스터가 왜 필요한가? 십 년 뒤, 삼십 년 뒤에도 이것은 존속 가능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충분히 날씨를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오늘 날씨'라는 검색어를 치기만 해도 정보가 넘쳐나는데, 기상캐스터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오랫동안 스스로 물어왔던 것입니다. 만연한 정보와 그것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기술력때문에 점점 제 직업의 입지와 중요성이 작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고민이 비단 기상캐스터라는 직종에 한정된 것은 아닐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만든 기술이 인간의 자리를 빼앗고 위협하는 역설적인 현상을 도처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알파고라는 인공 지능이 이세돌 구단을 이긴 것은 신호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인공 지능은 소설 창작과 같은 예술의 역까지 넘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는 시대가 온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컴퓨터는 내일 기온, 예상 습도와 풍향 등을 수치화해 알려주는 있지만,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옮겨 갈 때 우리 주위의 풍경이 어떤 식으로 미세하게 얼굴을 바꾸고 있는지를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기상캐스터는 방송 원고를 직접 작성하는데, 원고를 통해 봄꽃이 진 자리에 어느새 녹색 잎이 돋어나고 초여름 햇살이 신록을 싱그럽게 하기 시작했음을, 그렇게 조금씩 여름이 시작되고 있음을 자연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것은 오직 사람 인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9/1/16 (목) 오후 6시 30 분

9월 성체조배는 첫째 목요일인, 9월 1일(목), '저녁 6시 미사' 후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성체안 현존하시는 예수님과 사랑의 기도 나누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협 임원회의: 9/11 (일) 오후 7시

9월 한인공동체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는, 둘째 주일인 9월 11일(주일) 저녁 7시에 사제관에서 있습니다.

주일 미사 시간 변경 (오전 9:00 시)

한인 공동체 미사시간이 오는 9월부터 오전 8:00 시에서 오전 9:00 로 변경 됩니다. 새로운 미사시간에 더 많은 신도들이 참여 할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 성당 골프 대회, 10월 2일, 12시 30 분. 리오 브라보 CC

매년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한인공동체 골프대회를 10월 2일 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활기차고, 즐거운 골프대회를 위해, 준비위원으로 일하실, 자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으신분은 이 요한 총무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공부(성서통독) 안내

성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서로 배움을 고무시켜주기위해, 이번 9월부터 시작할, 성경공부 그룹을 모집합니다. 성경을 함께 읽어가면서,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을 외우거나, 써 가지고 오셔서, 그룹으로 나눔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 유스티나 총 구역장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모임은 8월 28일 친교 모임 후에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날씨에 따라 특히 그것에 취약한 계층이나 연령대가 각기 다름을 인지하고, 폭염 예보를 할 때 주위에 냉방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없는지 살펴달라는 당부를 하는 것 역시 사람인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있습니다. 바로 '기도' 입니다. 타인과 감성을 공유하는 것, 타인의 무사 안녕을 빌어주는 것, '기도'와 '신앙' 역시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밤 한 주가 지나갔고, 또 다른 한 주가 시작된다는 단순한 사실에 감사하며 나와, 사랑하는 당신의 아름다운 여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무수한 흔들림 속에서도 나름의 중심을 찾아가고 있는 사랑스러운 우리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리 상식)

노자 성체란 무엇인가요?

노자(路資) 성체는 라틴어로 비아티쿰(Viaticum)이라 하는 데 '긴 여행을 위한 준비'라는 뜻입니다. 노자 성체는 초 대 교회에서부터 삶과 죽음의 두 가지 긴 여정에서의 적인 준비, 곧 세례와 마지막 성체를 의미했습니다. 지 금은 죽을 위험에 놓인 신자에게 마지막으로 해주는 성 체만을 뜻합니다. 노자 성체의 경우에는 공복재를 지키지 않아도 되며, 노자 성체는 병자성사처럼 한 번 이상 할 수도 있습니다.

신자 재교육 교리 상식1 「미사 전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